

5월 선교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사랑하는 선교회 식구들 모두에게 늘 넘치길 축복합니다. 요즘 이곳은 평년과는 달리 우기가 무척 길고 고르지 못한 날씨가 연이어져 여러 일들이 다소 지체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신이 움추러드는 기분이 듭니다. 후방의 식구들은 어떠신지요?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강함 주시길 기도드리며 5월 소식 나눕니다.

I. 탕가 신학교 소식

두 번째 학기가 시작된 지 3주가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신입생 3명이 새로 입학하였지요. 모두 지난 첫 학기, 2월에 저희 부부가 동문들을 방문하는 중에 추천받은 학생들이기에 그런 여행의 중요성을 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1명의 학비는 리빙 스톤 중학교 교사가 장학금을 후원하여 학업을 하고 있어 더 아름답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II. 리빙 스톤 중고등학교 소식

1. 모의고사

지난 월요일 부터 4학년 학생들이 탕가 도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모든 시험 일정을 마치고 약 3주의 Intensive Course (집중학습기간)를 마치면 잠시 방학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2학년 학생들은 학교가 속해있는 므헤자 군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를 일주일 간 치르게 됩니다.

특히 4학년들의 모의고사 성적이 국가시험에 반영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긴장 속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2. 학기말 시험

2018년 첫 학기가 6월 1일에 종강을 하게 됩니다. 그에 앞서 치르는 시험입니다. 시험 후 중1~3학년과 5학년(고1) 학생들은 방학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4학년들과 7월에 고1이 되는 학생들은 6월 중순까지 학업이 계속 됩니다.

III. 학교 건축소식

고등학교 학생들 기숙사 마무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가는 길에 자갈을 깔아 리빙 스톤 캠퍼스에서 걷고 싶은 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부의 침대와 책상 그리고 사물함이 옮겨졌으며 건물 외관의 페인트 작업과 정원, 낮은 울타리 치는 일 등 나머지도 차질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IV. 지역교회 건축 소식

올 해는 미국과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이곳 지역교회건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5개 교회가 신학교가 속해 있는 탕가 지역과 리빙 스톤 학교가 속해있는 므헤자 지역에서 건축될 것입니다. 두 학교가 속해 있는 탕가도는 무슬림 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은 지역인데 교회 건축이 복음전파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학교가 속해 있는 지역에 보다 많은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는 증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체적인 기도를 위하여 각 교회의 이름을 소개 합니다.

- 1) Kicheba Elim 교회
- 2) Muheza Elim 교회
- 3) Kilapula EAGT 교회
- 4) Pangani Sakura Elim 교회
- 5) 미정(건축비는 준비됨)

모두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치려합니다. 주로 리빙스톤 학교의 기술자들이 투입되는데 학교일에 지장없이 순조롭게 건축과정이 진행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V. 단기선교팀 소식

5월 초에 수원서부교회 선교팀 (고태일 김진우 선교사님 교회)이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감리교 목사님들과 사모님 팀 (총 8명)이 최명철 김주홍 선교사님의 후원자로서 사역지를 방문 중 입니다. 이번 방문으로 위 4개의 교회 건축을 위하여 후원하셨습니다.

VI. 박 선교사 부부 고국방문

6월 1일 부터 6월 21일까지 박선교사 부부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가장 큰 목적은 건강 종합검진 (한방 검진 포함)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한국의 동아프리카선교회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병원 예약을 완료하였다는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6월 4일 서울 삼성병원 입니다. 지난 23년간 건강 보험 가져본 적이 없으나 하나님은 선교회와 그밖의 손길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검진 잘 받고 좋은 검사 결과 얻어 사역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1. 신학교와 리빙스톤 학교의 원활한 학사일정을 위하여.
2. 지역교회 건축을 위하여.
3. 박선교사 부부의 고국방문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시는 모든 분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2018년 5월 28일

탄자니아에서 김은래 박윤석 선교사 드림